

#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졌다”...BTS, 한국가수 첫 빌보드 싱글 1위

SONG	ARTIST
1 Dynamite	BTS
2 WAP	Cardi B ft. Megan Thee Stallion
3 Laugh Now Cry Later	Drake ft. Lil Durk
4 Rockstar	DaBaby ft. Roddy Ricch
5 Blinding Lights	The Weeknd
6 Whats Poppin	Jack Harlow ft. DaBaby, Tory Lanez & Lil Wayne
7 Watermelon Sugar	Harry Styles
8 Roses	SAINT JHN
9 Savage Love (Laxed - Siren Beat)	Jawsh 685 x Jason Derulo
10 Before You Go	Lewis Capaldi

신곡 '다이너마이트' 핫100 정상에 양대 차트 석권...K팝 역사 새로 써 아시아인 첫 앨범-싱글 1위 대기록 "계속 눈물이...꿈처럼 믿기지 않아요"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사진)이 '다이너마이트'의 거대한 폭발력으로 더 이상 자신들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음을 선언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HOT) 100' 정상에 올라 세계 대중음악사의 대기록을 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활동 반경도 좁아졌지만, 위기를 기회로 되살린 힘이다.

빌보드는 1일(이하 한국시간)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최신(5일자) 싱글차트 '핫 100'에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수의 '핫 100' 정상은 처음이다. 아시아 가수로는 1963년 일본 사가모토 규의 '스키야키' 이후 57년 만이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2018년 5월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의 1위에 오른 지 2년3개월 만에 '핫 100'까지 접수하면서 빌보드 양대 차트를 휩쓰는 대기록을 세웠다.

'핫 100'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의 순위를 보여주는, 빌보드의 핵심 차트로 꼽힌다. 방탄소년단은 탄탄한 팬덤을 기반으로 '빌보드 200' 4연속 1위에 이어 '핫 100' 정상에까지 올라 세계 팝음악 시장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을 과시했다.

앞서 이들은 올해 초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 개

최' 등 활발한 활동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로 모든 무대가 막히는 위기에 처했다. 그 돌파구로 "새 앨범"을 내세웠지만, 그보다 앞서 팬들과 가깝게 즐기 위해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대신했다. 경쾌한 디스코 팝 리듬과 코로나19에 지친 이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처음으로 영어 가사에 담아냈다. 이를 통해 시대와 끊임 없이 소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며 스스로도 또 다른 기회로 삼았다.

이들은 이날 "계속 눈물이 난다"면서 "여전히 꿈을 꾸는 것처럼 믿기지 않는다. 아미에게 고맙다"고 세계 정상에 오른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전 세계인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만든 노래라 하니 더욱 뜻 깊다"며 축하 메시지를 건넸다.

▶ 관련기사 3면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한화 투수 신정락은 8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KBO는 긴급히 접촉 선수 및 구단 직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KBO는 각 구단에 확진 예방을 위한 매뉴얼의 엄격한 준수 등 추가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 스포츠중앙DB

### 한화 신정락 KBO 최초 코로나19 확진 파장

## 방역 뚫린 프로야구 리그만은 사수하라

다행히 양성 없어 1군 경기 정상 진행 접촉선수 진단검사 안 끝나 안심 못해 KBO "타 구단 선수와 악수·식사 금지"



약 4개월간 기적의 행보를 이어나온 KBO 리그의 방역망이 결국 뚫렸다. 한화 이글스 선수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한화 재활군에 머물고 있던 우완투수 신정락(33)은 8월 31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KBO는 긴급히

접촉 선수 및 구단 직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31일 늦은 오후부터 1일 새벽까지 실시했다. 한화 서산훈련장에 거주하는 2군 선수와 직원 40명이 검사 받았고, 다행히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신정락은 8월 30일 늦은 오후부터 고열 증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25일 이후 2군에서 1군으로 풀업된 한화 선수 2명에 대한 진단검사로 즉각 진행됐는데, 역시 음성 판정이 나왔다. 또 이들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선수 2명 또한 1일 오전 2시께 KBO가 긴급 지정된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오전 중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외부 거주 선수 등과 임직원,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8월 25~26일 서산구장에서 한화와 퓨처스리그 경기를 소화한 LG 트윈스 2군 선수단 역시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렸다. 신정락과 접촉한 선수 2명과 접촉한 선수들의 룸메이트 2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1일 새벽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1일 2군 선수단 전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로 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예방 차원에서 역학조사관의 판단 전까지는 격리하기로 했다. 또 진단검사가 최종 완료되지 않은 한화와 LG의 1일 퓨처스 경기는 모두 취소됐다. 한화 외부 거주 선수 등 추가 인원의 진단검사 결과가 아직 모두 나오지 않았고, LG 2군 선수단의 진단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KBO는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정을 다시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군에 풀업된 한화 선수 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일 잠실에서 예정됐던 한화-두산 베어스의 1군 경기는 역학조사관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기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KBO는 1일 오후 방역당국으로부터 경기 진행의 안전성을 확인 받은 직후 한화-두산전을 포함한 5경기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KBO는 1일 각 구단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매뉴얼의 엄격한 준수 등 추가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 선수단의 개별 모임을 금지하고 타 구단 선수와 악수, 식사, 동일 이동수단 이용 등을 일체 금지하는 동시에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2면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KMGM**  
HOLD'EM & EVENT PUB

## KMGM 홀덤 이벤트룸 ROAD SHOP 런칭

외식 유통 프랜차이즈 KMGM에서 미래를 함께하실 점주님을 모집합니다.

▶ 30평미만으로 창업 가능 ▶ 1억미만 소자본 창업 ▶ 업종변경가능

창업상담 : 1644-7861